



## <처용가處容歌>를 통해 본 달의 에로티즘 연구

A Study of the Moon Eroticism in Cheoyongga (處容歌, "Song of Cheoyong," a Shilla hyangga)

---

저자 (Authors)	허혜정 Huh, Hye-jung
출처 (Source)	<a href="#">동서비교문학저널</a> , (10), 2004.06, 31-54 (24 pages) <a href="#">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a> , (10), 2004.06, 31-54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a> The Korean Society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433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4338</a>
APA Style	허혜정 (2004). <처용가處容歌>를 통해 본 달의 에로티즘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10), 31-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8 14:3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처용가處容歌>를 통해 본 달의 에로티즘 연구

■주제어 : 달신, 질병, 영매, 삼재(三災), 구마(驅魔)

moon-god, disease, spirit medium, the Three Disasters from  
baleful stars, practice of exorcising

허 혜 정  
(서울여대)

### I. 서론

이 논문은 <처용가處容歌><sup>1)</sup>의 미적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로티즘적 요소를 달과의 연관성을 통해 짚어보려는 시도이다. 잘 알려진대로 <처용가>는 신라 49대 원강왕 (879년) 때 동해 용왕의 일곱 아들 중 한 아들이 임금을 따라 서울에 와서 정사를 보좌한 덕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선택받아 급간(級干)의 벼슬을 얻어 살고 있던 중 어느 날 밤 역신(疫神)이 아내를 탐하고 있음을 보고 노래와 춤으로 그 역신을 감복시켜 퇴치케 했다는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8구체의 향가이다.

1) 『삼국유사』에서 발췌된 처용 본문 이외의 전승텍스트들은 김명준의 [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002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바타이유의 관점에서 보면 에로티즘의 가장 큰 원리는 상징적 동물인 인간이 설정한 금기를 위반할 수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처용가>에서 에로틱한 내용들은 ‘간통’이라는 ‘금기’의 위반이라는 문제로 제시되어 있다. <처용가>는 욕망조차 정토행의 염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불국토에서 떠들썩한 풍속의 위반은 물론, 그 적나라한 표현의 수위, 빼어난 상징과 시상전개 방식 등을 통해 볼 때 당대의 향가 작품 속에서도 거의 ‘새로운 어법의 발생’이라고나 해야 할 만큼 문제적이다. 특히 ‘다리가 넷’이라는 부분은 에로틱한 이미지의 무한한 창고로서 십 수세기 동안 끝없이 패로디된 명귀절이며, 고요히 ‘정토(淨土)’를 꿈꾸는 ‘신라의 달밤’에 벌어진 불륜담을 대중들은 거의 천 삼백 년동안이나 떠들썩한 유희로 즐겨왔다. <처용가>는 당대의 사회적 도그마를 부서뜨리며 조선조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분류된 거대한 연시의 전통을 열어젖히며, 과감한 성애의 표현으로 조선조에 음란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폐지’를 명령받았을 만큼 문제적인 에로틱한 텍스트이다.

일단 <처용가>의 깊은 문맥을 짚어보기 전에 처용가가 던진 파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처용가>는 신라 헌강왕 시대의 향가 <처용가>, 이제현의 한역시인 <처용>([『고려사』 『악지』 동일), 『시용향악보』 소재 <잡처용(雜處容)>, 『가사』 소재 <처용가> 등 4종이 존재하는데<sup>2)</sup> 이는 수많은 전승텍스트로 확장 분화되었다. 잘 알려진대로 <처용가>는 ‘향가’라는 장르적 틀을 뛰어넘어, 고려가요, 악장, 향악정재 등의 연희무 등의 수많은 장르적 확산과 변용을 되풀이해온 거의 십 수세기에 걸친 문학이다.<sup>3)</sup> 김춘수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시인들의 미적 탐

2) 이와 같은 현상은 처용 전승이 결코 단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노준, 『고려처용가의 형성 과정』, 『고려가요의 연구』(새문사, 1990) ; 하태석, 『무가계 고려속요의 성격 연구』, 『어문논집』 43집(민족어문학회, 2001). 김명준 <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에서 재인용)

3) <처용가處容歌>는 향가작품은 물론 해독의 계기를 마련해준 고려 속요, 처용희의 일부로서 가창되었으며, 의식무, 또는 연희의 성격을 띠고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계속 전승되었다. 처용가는 향악정재(鄉樂樂才)의 하나로 창제·공연되었고, 국한문의 가사로 된 <처용가>가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說)에서 여기(女妓)에 의해 노래로도 불려졌다. 세종 때 윤회(尹淮)가 <처용가>의 곡조를 개찬(改撰)한 <봉황음(鳳凰吟)>의 악보가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봉황음(鳳凰吟)은 조선 세종 때 윤회(尹淮)가 지은 별곡체 악장이다. <처용

구의 표적이 되어왔고, 90년대의 소설 <처용가>로 패로디될 정도로 아직도 끊임없이 생성 중인 대단히 신비롭고 생명력 있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십 수세기 동안 처용가에 대해 대중들은 이상한 상상을 했다. 간통으로 암시된 <처용가>의 주제를 벽사(辟邪)의 노래로 해석해온 것이다. 어떻게 간통의 주제로 암시되는 노래가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처용가>가 제공하는 에로틱한 정보들의 주술적 의미를 해독해보기 위해서는 처용이 토착민이라기보다는 아랍인이라는 전제가 더욱 긴요하게 여겨진다. 처용을 아랍인으로 보게 하는 근거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듯 처용이 ‘바다’에서 나온 ‘용’의 자손이라는 신화적 이미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단히 극소수의 견해이지만, 중대한 학설로 굳어져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처용가>의 에로틱한 분위기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주 교양적인 주제로서 다루어지던 에로티즘과는 확연히 다른 아랍적인 미감을 노출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아랍과 신라/고려는 대단히 깊은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향가라는 것이 본래 불교적인 장르임을 고려해볼 때, 향가의 전통 속에 대담하게 던져진 처용가의 이색성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본 연구는 아랍의 문화기류가 <처용가>의 생산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생성 변형된 이색적인 특질들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으나 그에 관한 비교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삼국유사』의 기술물 뿐 아니라 처용과 관련된 여러 전승물들의 도움을 받아, 처용가의 시문학적 생명력의 본질을 달과 에로티즘이라는 두 코드를 통해 중점적으로 규명한다. 특히 <처용가>의 문화적 생명력의 핵심에는, 달의 상징을 중심으로 한 아랍과 한국의 문화전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며,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는 처용 전승물을 전반적으로 특징짓고 있는 처용의 특이한 인물상을 먼저 달의 의미와 결부

---

가(處容歌)의 가사만 <봉황음>으로 바꾸고 악곡은 <처용가>의 악곡을 그대로 얹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작품으로 나라와 왕가(王家)에 대한 송축가이다. 가사가 『세종실록』 권146에 악보와 함께 실려 있고, 나례의식(讎禮儀式) 후 거행된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說)에서 <처용가> 등이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 「시용향악정제조(時用鄉樂呈才條)」에 <처용가> <동동> <정과정> 등의 고려가요와 함께 실려 전하는 가사는 처용가의 생명력을 확연히 입증하는 자료들이다.

시켜 제시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역신과 처용아내의 정체를, 달이라는 상장을 둘러싼 영적 의미와 연결시켜보는 것이다.

## II. 달의 아들, 처용랑(處容郎)

다양한 처용의 전승텍스트나 처용희의 ‘가면’의 이미지가 암시하듯이 주술적 관점, 역사적 관점 등에서 처용의 다양한 인간적 특성들은, 인격적인 범주로 보아 대단히 폭넓게 해석되고 변용되어왔다. 가령 대중의 무의식적 소통을 거쳐 축사적 제의를 수행하는 박수적 이미지로 해석되기도 했고, 로맨틱한 예인적 인물상, 혹은 지방 호족 등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흘러들어온 해상루트, 당대의 아랍과의 교역현실,<sup>4)</sup> 술과 가무를 즐기는 그의 행적, 『악학궤범』에 묘사된 그로테스크한 형모<sup>5)</sup> 등은 거의 모든 척도에서 그를 아랍 상인으로 보게 한다. 신라의 토착

4) 처용이 출현하던 현강왕 당시, 신라와 이슬람 세계간의 교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8세기 이후 중국 동남부 해안과 한반도 간의 해상교역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아랍 상인들의 한반도 진출은 8~9세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송에서 원으로 중국왕조가 교체되면서, 8세기 중엽 이후 아랍 상인이 개척한 해상 루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육상 실크로드가 다시 교역로로 활기를 띠어갔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현종 15년(1024) 9월에 “大食國의 100여 명이 토산물을 바쳤다”고 하였고, 이듬해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또 정종 6년(1040)에는 대식국 상인이 수은, 향료(占城香) 등의 물자를 바치자 그들을 객관에 머물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상단이 수차 고려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국제교역이 일회성의 소규모 무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조직적인 공무역임을 입증해준다. 고려와 이슬람 세계의 인적인 교류도 활발해져서 회회인(回回人)이라고 불렸던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할 때 몽고군의 일원으로, 이후에는 몽고 지배하의 고려에 지배세력으로 유입, 정착하기도 했다. 처용의 전승텍스트를 보면 처용을 ‘回回아비’라 부른 구절이 상당수 나온다.

5) 처용의 외양은 악학궤범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묘사된다.

- 어와 아비 즈시여 處容아비 즈시여—아 아버의 모양이여 처용아버의 모양이여
- 滿頭種花 계오샤 기울어신 머리예—머리에 가득 꽃은 꽃이 겨워 기울어지신 머리와
- 아오 壽命長願 하샤 넘거신 니마해—아 수명이 길고 오래서어 넓으신 이마와
- 山象이슴 깊어신 눈넙에—산의 모습과 비슷한 무성하신 눈썹과(박병채), 山象은 ‘罔象’ (물과 하늘이 합하여 물건이 표류하는 것)의 謾訖(김완진)
- 愛人相見 하샤 오솔어신 눈에—사랑하는 사람을 보시어 온전하신 눈과

민이 되어 향가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는 아랍문화구역에서 폭넓게 향유된 『천  
일야화』만큼이나 우리 문화에서 가장 오래, 드넓게 향유된 텍스트를 남겨두었다.

본 장은 처용의 정체에 관한 수많은 학설 중에서도 처용왕의 정체가 아랍상인  
이라는 학설<sup>6)</sup>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며 출발한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 일  
찍이 대식(大寔, 즉 大食)으로 명명된 이슬람 문화와 한국문화간의 교류는 그 역  
사적 연원이 구체적인 문헌으로 추적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실제  
로 그 문화교류의 영향은 우리의 문화 곳곳에 깊은 흔적을 새기고 있다.<sup>7)</sup> 가령,

- 風入盈庭<sup>6)</sup>호샤 우글어신 귀에-바람이 불어 뜰에 가득차 우글어지신 귀와(박병채), 德風이  
가득하신 듯 우글어지신 귀와(지현영)
- 紅桃花<sup>7)</sup>티 붉거신 모야해-붉은 복숭아꽃같이 붉으신 얼굴과
- 五香 마트샤 응기어신 고해-오향나무 맡으시어 우묵한 코와
- 아으千金 머그샤 어위어신 이베-아 천금 머금으시어 넓은신 입과
- 白玉琉璃<sup>8)</sup>티 희어신 닛바래-백옥유리같이 희신 이빨과
- 人讚福盛<sup>9)</sup>호샤 미나거신 특애-남들이 칭찬하고 복이 성하여 밀어나오신 턱과
-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애-칠보에 겨워 숙이신 어깨와
-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슷맷길헤-길흥자락(비단)에 겨워 늘어진 소맷길에(최철)
- 설피 모도와 有德<sup>10)</sup>호신 가스매-지견(知見) 모야 유덕하신 가슴과
- 福智俱足<sup>11)</sup>호샤 부르거신 비에-복과 지혜가 다 족하시어 부르신 배와
- 紅靑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붉은 가죽띠에 못이겨 굽으신 허리와
- 同樂太平<sup>12)</sup>호샤 길어신 허뒤애-함께 즐기고 크게 편안하시어 기신 다리와
- 아으 界面 도르샤 넘거신 바래-아 계면조 도시어 넓은신 발과

<봉좌문고본(蓬左文庫本) 『악학궤범(樂學軌範)』, 권(卷) 5 시용향악정제도의(時用鄉樂呈才圖  
儀).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

- 6) 이용범, 『처용설화의 고찰-당대 이슬람상인과 신라』, 『진단학회』 32, 진단학회, 1969 ; 『대동문  
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 7) 처음으로 이슬람과의 교류의 오랜 흔적을 남긴 이는 고승 혜초(慧超)와 명장 고선지(高仙芝)  
다. 혜초는 4년 간(723~727년)의 서역 순방 기록인 『왕오천축국전』에서 사상 최초로 아라비  
아를 대식(大寔, 즉 大食)으로 명명했으며, 8세기에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관계사에서 개척자  
적 역할을 했다.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는 파미르 고원을 다섯 차례나 넘나들었는데 그  
의 서정(西征)으로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당제국과 이슬람제국이 병립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출현하여 중세 동서관계사에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슬슬(瑟瑟)같은 서역 문물이 중국과 신  
라에 전래되었으며, 이슬람 문명권과 한문명권 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되었다. 1천여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신라와 이슬람 세계 간의 교류와 만남은, 고려시대부터는 한국측 문헌기록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시피 여러 형태의 접촉으로 확장되었다. 정종 6년(1040), 대식국(大食國)  
상인이 물건을 바치자 그들을 객관에 머물게 하였다는 『고려사』의 기록과 아랍의 기록이 남  
아있다. 라쉬드 알딘의 『중합사(Jami al-Tawarikh)』에는 한국을 “Kao-li(고려)”로 표기하고

신라의 古都 경주에서 발굴된 서아시아의 교역품과 패능의 이방인 석상, 처용의 등장은 이슬람 문화의 한반도 유입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물증들이다. 이와 같은 흔적은 한반도와 이슬람세계가 다차원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에서 아랍-이슬람제국을 비롯한 서역의 유물이 발굴되고, 아랍 문헌에 무슬림 상인들이 신라에서 가져간 교역품에 관한 기사가 보이며, 또한 신라가 서역이나 동남아의 문물을 일본에 전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9세기 중엽 아랍 문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일찍이 우마이야조 아랍 제국이나 아바스조 이슬람제국 시대부터 아라비아 반도나 이라크, 그리고 기타 지역의 무슬림이나 외방인들이 중국을 경유해 그 동편에 위치한 신라에 도착했고, 무슬림들이 신라에 장기간 정착했다. 그리고 처용의 전승물은 그가 이런 경로를 통해 도착한 아랍 상인이라는 설정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 처용의 출현에 대해 『고려사』 <약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처용 신라(新羅)의 헌강왕(憲康王)이 학성(鶴城)에 갔다가 개운포(開雲浦)로 돌아왔을 때 홀연히 한 사람이 기이한 몸짓과 괴상한 복색을 하고 왕앞에 나와 노래와 춤으로 덕(德)을 찬미(讚美)하고 왕을 따라 서울로 갔다. 그는 자기를 처용(處容)이라 부르고 언제나 달밤이면 시중(市中)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였으나 끝내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신인(神人)이라고 생각했다. 후세(後世)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이 노래를 지었다. 이체현(李齊賢)이 시(詩)를 지어 이 노래를 풀이하였다.”<sup>8)</sup> (『고려사』 권71 <약자>)

위의 기술물은 처용의 괴이한 출현과 외모, 그리고 풍류적 자질에 대한 설

---

있고, 알리 아크바르의 『키타이書(Hitayname)』에서는 고려를 상업이 매우 발달한 풍요로운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고려 초에 대식(大食, 아랍) 상인들이 상역차 수도 개경에 대거 내왕했다는 명백한 기사도 있다. 이에 관한 방대한 자료는 이미 정수일교수의 저술로 소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븐 바투타, 정수일 역, 『이븐바투타 여행기』, 창작과비평사, 2001/정수일, 『新羅·西域交流史』,檀國大學校出版部, 1992/『문명교류사 연구』, 사계절, 2002/『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이슬람 문명』, 창작과비평사, 2002/그리고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1991 등)

- 8) 處容 新羅憲康王 遊鶴城 還至開雲浦 忽有一人 奇形詭服 詣王前 歌舞讚德 從王入京 自號處容 每月夜 歌舞於市 竟不知其所在 時以爲神人 後人異之 作是歌 李齊賢 作詩解之 <『高麗史』 卷71 樂志>

명을 해주고 있다. ‘용의 아들’이라는 처용의 신비로운 기원이나 처용의 기이한 복색과 풍모 등은 그를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인신(人神)’이라는 영웅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처용이 출현한 ‘개운포’라는 것은 구름과 안개가 걷힌 포구라는 뜻이다. 마치 ‘신밧드의 도시’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당시 포구 혹은 ‘해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아랍과의 교역루트를 상기해보면) 개운포에 나타난 낯선 이방인은 아마도 아랍인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그가 아랍에서 태어났건 한국의 어촌에서 태어났건, “왕의 그를 미인에게 장가들이고 그의 마음을 안착시키고져 다시 급간 벼슬까지 시켰다. 그의 안해가 너무도 고왔기 때문에 역병 귀신이 탐내어 사람으로 변하여 밤이면 그 집에 가서 몰래 데리고 갔다”<sup>10)</sup> (『삼국유사』 권제2 <처용왕과 망해사>)라는 기록을 보면 처용의 아내는 왕이 선물로 내릴만큼 아름다운 미인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불길한 재난을 초래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

9) 신라에서 고려조의 대외교역은 일찍부터 장려되었다.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 왕실이 무역상인의 집안이었던 만큼 고려의 상인들은 개경을 벗어나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전포 등지의 항구를 끼고 상업 활동을 벌였고, 부상(富商)들은 또한 해외무역에도 종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예성강의 벽란도, 무주의 회진·승평, 강주, 전주의 임파군과 회안현, 정주, 풍주 등의 항구를 대외교역 창구로 활용했으며, 개경에 가까운 벽란도는 고려 최대의 교역항이었고, 정주 역시 이에 버금가는 무역항이었다. 고려 조정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던 이들 포구를 조운로라 불리던 해로로 이용했으며, 포구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대외교역을 통제했다. 이러한 여건은 고려의 대외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송측의 자료에 ‘고려상인’, ‘고려매인(高麗買人)’으로 표현된 이들, 그리고 고려 상선의 존재와 고려 망수(高麗綱首)에 대한 시박세(市舶稅)의 내용을 통해 해외무역에 종사하던 고려 상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와 송의 교역은 예성강에서 대동강구를 거쳐 산동지역에 이르는 북선항로와 예성강에서 흑산도를 거쳐 명주에 이르는 남선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 상인들의 무역활동은 상품을 고려왕에게 헌상하고 그에 대하여 무역 허가와 회사를 받는 사헌무역(私獻貿易)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른바 ‘팔관회적 질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조공 질서에 대응하는 고려의 주체적인 외교체제였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교역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려·송의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상(宋商)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고려측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즉 송상은 고려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으며, 때로는 주문을 받아 물품을 대는 도매상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양국간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국제사절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불경을 고려에 들여오기도 하고, 개인간의 서신을 전달해주기도 했다. 송상들은 교역 이외에 정치적, 문화적 교류나 사적인 친분의 매개자였던 것이다.

10) 『삼국유사』 리상호 번역, 고전연구실, 과학원 출판사. 1960년. 207쪽

너의 이름다움에 대한 매혹에서 발단된 역신의 침범은, 처용가와 관련된 사건을 사회적인 동기나 위반의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자연적인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게 한다. 『삼국유사』 권2 <기이奇瑞>에 수록된 <처용가>의 기술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리 속에 두 사람이 누운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만 물러나왔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동경 밝은 달에  
 밤 이슬히 놀고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고나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해이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는걸 어찌리

이 때에 귀신이 처용의 앞에 정체를 나타내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안해를 탐내어 지금 그를 상관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노하지 않으니 감격스럽고

11)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 笙歌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 於是大王遊開雲浦(在鶴城西南 今蔚州) 王將還駕 畫(\*書字之訛)歇於汀邊 忽雲霧冥에 迷失道路 司問左右 曰(\*日字之訛)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 爲龍齋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爲字之訛)人 夜至其家 竊寢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二隱吾下於叱古/二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儆(\*辟字之訛)邪進慶 王既還 乃卜靈鷲山東麓勝地 置寺 曰望海寺 亦名新房寺 乃爲龍而置也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或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云 既神出舞 審象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髻舞 此乃以其形稱之 又幸於金剛嶺時 山岳神呈舞 名玉刀鈴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于字之訛) 語法集云 于時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 <三國遺事 卷2 紀異 處容郎 望海寺>

장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부터는 맹서코 당신의 얼굴만 그려 붙여 둔 것을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소” 하였다. 이 까닭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붙여 나쁜 귀신을 쫓고 복을 맞아 들이는 것이다.”<sup>12)</sup>

위의 기술물은 처용과 역신, 아내 사이의 ‘간통’으로 암시되는 사건을 둘러싼 처용의 예술적인 반응과 효과, 역신의 감복과 후퇴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처용가>를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학적 모티프가 ‘밝은 달’과 관련되어 있으며, 달은 향가로 창작된 처용가 뿐 아니라, 고려조의 속요, 조선조의 악장, 연희전통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기술물에서 <처용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경의 ‘밝은 달밤’ 즉 보름달이 뜬 날이다. 부드러운 태양 같은 만월은 여성의 영적 아우라이다. 달은 인격적 존재인 여성성의 상징이며, 태양으로 대변되는 남성적 우주의 관계적 은유이다. 여러 문화구역에서 태양처럼 달빛이 환해지는 만월은 절정에 오른 여성적 욕망의 상징으로 매우 특별하게 여겨져 왔다. 동양에선 일반적으로 만월은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처용가에는 불길한 달에 대한 감수성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는 아랍적인 감수성이 반영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중대한 의문을 논하는 가지고 있다. 폭넓게 보아 처용가의 달은 처용아내의 욕망의 분출과 연관되어 있으며, 달밤마다 가무를 즐긴 처용의 풍류적 광기, 가장 비참한 재난 앞에 보인 불가해한 반응 등은 전체적으로 붉은 욕망의 방류와도 같은 달의 정조를 느끼게 한다.

처용이 달의 상징체계와 맺고 있는 또다른 관련성은, 처용은 “매달 달밤이면 시중에서 가무를 했는데” “그가 노래하고 춤추던 곳은 후세 사람들은 월명항(달밝은 골목)이라 하였다”<sup>13)</sup>는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처용가> 뿐 아니

12) 『삼국유사』(정덕본) 리상호 번역, 고전연구실. 과학원 출판사. 1960년 207-208쪽  
13) 從王入京 自號處容 每月夜歌舞於市 竟不知所在 其歌舞處 後人爲月明巷 因作處容歌處容舞假面以獻<『東京雜記』>왕을 따라 서울에 들어가 자호를 처용이라 했다. 매달 달밤이면 시중에서 가무를 했는데 끝내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그가 노래하고 춤추던 곳은 후세 사람들은 월명항(달밝은 골목)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처용가를 짓고 처용무 가면을 만들어 연희했다.<『동경잡기』>

라 그 전승텍스트들은 모두 달의 상징과 포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처용희의 경우도 수세기에 걸쳐 변용전승된 열 여덟 개의 기록을 보면 일종의 달과 관련된 카니발적 감수성을 풍긴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sup>14)</sup> 물론 역신이 아내를 범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던 그 날도 달빛이 휘영청 밝은 날이었다.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이 처용가의 기술물은 어딘지 『친일야화千一夜話』와 흡사한 데가 있다는 점이다. <처용가>의 정황은, 왕이 사냥을 나가자마자 검은 수육의 화신과도 같은 흑인노예를 궁중뜨락으로 불러들인 왕비가 나오는 『친

- 14) 고려조에 처용에 관련된 총 열 여덟군데의 관련 기록이 보인다. 개중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新羅昔日處容翁 見說來從碧海中 貝齒頰唇歌夜月 鳶肩紫袖舞春風<『齋齋亂風』卷4> 옛날 신라의 처용 늙은이, 푸른 바다에서 왔단 말 들었지. 흰 이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하고, 제비 어깨 붉은 소매로 봄바람에 춤추네. <『익재난고』 권4> // 2. 新羅處容帶七寶 花枝壓頭香露零 低回長袖舞太平 醉臉爛赤猶未醒<『牧隱集』 卷21 驅儼行> 신라 처용은 칠보를 띠고, 꽃가지 머리 누르고 향기로운 이슬 떨어지네. 긴 소매 낮게 돌려 태평을 춤추니, 취한 뺨 타는 듯 붉어 아직 술이 덜깨었네.<『목은집』 권21 구나행> // 3. 夜久新羅曲 停盃共聽之 聲音傳舊譜 氣像想當時 落月城頭近 悲風樹杪嘶 無端懷抱惡 功益爾何爲<『陶隱集』 卷2 十一月十七日夜 聽功益新羅處容歌 聲調悲壯 令人有感> 늦은 밤 신라 노래 잔을 멈추고 함께 들네. 노래 가락 옛악보에 전하고 기상은 그때를 떠올리게 하네. 지는 달은 성머리에 걸려 있고 비장한 바람은 나무끝에서 우네. 무단히 마음만 싱숭생숭 공익이 날 어찌리.<『도은집』 권2> // 3. 處容 新羅憲康王 遊鶴城 還至開雲浦 忽有一人 奇形詭服 詣王前 歌舞讚德 從王入京 自號處容 每月夜 歌舞於市 竟不知其所在 時以爲神人 後人異之 作是歌 李齊賢 作詩解之 <『高麗史』 卷71 樂志> 처용 신라(新羅)의 헌강왕(憲康王)이 학성(鶴城)에 갔다가 개운포(開雲浦)로 돌아왔을 때 홀연히 한 사람이 기이한 몸짓과 괴상한 복색을 하고 왕앞에 나와 노래와 춤으로 덕(德)을 찬미(讚美)하고 왕을 따라 서울로 갔다. 그는 자기를 처용(處容)이라 부르고 언제나 달밤이면 시중(市中)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였으나 끝내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신인(神人)이라고 생각했다. 후세(後世)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이 노래를 지었다. 이제현(李齊賢)이 시(詩)를 지어 이 노래를 풀이하였다. <『고려사』 권71 악지> // 4. 若有人兮秋浦雲 姣采服兮殊倫 朱絲衣兮鞞裳 紫貝齒兮鳶肩 聞夫君兮靈壽 橫六龍兮悠然 先安歌兮曼舞 北市兮西塵 總六部兮靡靡 烝以女兮威神 徠不時兮去不返 乘白龍兮蕩海津 川寂寂兮多風 巷月明兮無人 三尺頰兮五方衣 懷夫君兮徒紛紜 <『嶺南樂府』> 구름긴 가을 포구에 사람이 있으니 채색옷 입은 아름다운 모습 절륜(絶倫)하도다. 붉은 실 저고리에 황구(黃鞞)의 치마, 자주 조개 치아에 술개의 어깨로다. 들으니 부군은 신령하여, 여섯 용 비껴타고 빨리 날아다닌다 하네. 먼저 차분히 노래하고 하늘하늘 춤추며, 북쪽 저자에서 서쪽 전방으로. 육부가 모두 덩달아, 모두들 너를 무서운 신이라 한다. 불시에 왔다가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백룡을 타고 바닷가 포구를 분탕질하네. 넷물은 조용한데 바람은 많고, 마을에 달은 밝은데 사람이 없네. 석자 된 턱에 오방색 옷을 입고, 부군을 그리워하여 수선만 피우네.<『영남악부』>

『일야화千一夜話』를 떠올리게 한다. 분노한 왕은 왕비를 살해하고, 매일밤 자신의 신방으로 들어온 처녀를 죽임으로써 보복한다. 하지만 달처녀와도 같은 세례자데는 남성의 슬픔과 분노를 위로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진실로 왕다운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섬뜩한 신비와 부조리, 그리고 영혼의 진실을 통찰하는 자일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아랍문화권에서 『천일야화』가 그러하듯 실제로 처용가의 에로틱한 묘사나, 옥망의 ‘사고’에 얽힌 예술적 반응, 달밤의 이야기라는 설정, 기괴한 신비의 요소 등은 아랍의 문학정서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지만, 이는 대단히 폭넓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심대한 연구거리이기에 일단 남겨두고 지나가야 할 듯하다.

우선 <처용가>에 나타난 달의 정조는, 항가에서 일반적으로 정토행(淨土行)의 안내자로 나타나는 달의 불교적 의미와 대단히 이질감을 풍긴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논자는 아랍문화의 달에 대한 감수성이 이 시가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달신앙’은 바로 아랍의 문화정서와 <처용가>의 깊은 소통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대단히 유요한 지점이다. 달은 전이슬람 시대의 아랍권에서 한국의 샤머니즘 전통에서처럼 숭배되었다. 본래 이슬람교의 전신인 후별Hubal의 숭배는 거룩한Heavenly 육체로서의 달신숭배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달과 별과 해같은 천체를 숭배하는 한국의 샤머니즘적 전통과 매우 흡사하며, 종교적 근원상으로 보면 자연숭배와 동일한 것이다. ‘검은 돌’이라는 월석(月石)숭배전통과 관련된 전 이슬람의 문화가 마호메트 출현 이전에 아랍권에 보편화되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신이 곧 달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sup>15)</sup> 우주적 창조의 원칙이자 창조신인 이슬람의 신 알라가 달신moon-god에서 유래되었다는 흥미로운 연구는 전이슬람시대의 애니미스틱한 여성성에 대한 숭배전통을 시사하고 있다. 알라의 이름은 마호메트 시대 전에 카바

---

15) 이는 「아라비안 나이트」같은 전 이슬람 문화 속에 폭넓게 그 흔적이 남아있다. 수많은 모슬림들이 알라가 이미 모하메트가 오기 전에 아랍 이방인들에 의해 메카의 카바에서 숭배되었음을 받아들여 버리지 않지만, 어떤 모슬림들은 이런 사실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편이 아니다. 전 이슬람 문헌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G. J. O. Moshay, *Who Is This Allah?*, Dorchester House, Bucks, UK, 1994, P. 134)

(Kaaba, 신들의 집)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으로 섬겨지던 후별에서 온 것이다.<sup>16)</sup> 알라는 AL-ilah의 축어이고 그것은 달신the Moon God의 이름이다. 알라는 모하메트의 부족에게 초승달의 상징이었다. 그것을 모하메트가 이슬람으로 가져왔고, 바로 그 상징이 모스크의 광탑minarets, 성물shrines, 그리고 아랍의 국기에 남아 있다. 전 이슬람 시대의 애니미스틱한 전통에서 보면 아랍인들은 나무, 달, 동굴, 봄, 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신성과 접촉했다. 모하메트들이 검은 돌에 입맞추는 것은 월석(月石)이 후별에게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순례는 고대에 카바에 안치된 신성한 돌을 위함이었다고, 그러한 습관은 모하메트 이전에도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전 이슬람 문화의 관습은 한국의 샤머니즘의 달에 대한 특별한 신위 혹은 숭배전통과 흡사하지 않은가 싶다.

달과 별은 한국의 샤머니즘적 우주를 대변하는 특별한 상징인데, 그것은 무녀

---

16) 아랍은 본래 많은 부족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특별히 알라ALLAH를 경배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부족들이 알라를 경배했고, 알라는 당시 메카의 카바Kaaba에서 가장 일등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당시 마호메트가 태어난 Quraysh 종족에 의해 메카가 지배받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래서 오직 메카의 카바(신들의 집)에서 알라만이 최고신이 될 권리가 있었다 (Morey, Robert. *The Islamic Invasion: Confronting the World's Fastest Growing Religion*. Christian Scholars Press, Las Vegas, Nevada, 1992. P.51) 메카에서 알라는 특별한 신이었으며 특히 종족에게 '예언'을 주는 신이었다, 알라는 세 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다 (Van Ess, John, *Meet the Arab*, New York: The John Day Co.1943, p. 29) 이 외의 중요한 서지(F.E. Peters, *The Hajj*, UP of Princeton, 1996, pp.24-25)를 보면, 아랍에서 수백의 신들이 있었지만 이슬람 전야에 가장 인기있었던 신들은 AL-UZZA, ALLAT, AND MANAT였고 이들은 모두 여신이다. 이들은 알라의 딸들로 인식되었고, 일반적으로 Hijaz 종족에 의해 숭배되었다. 그 아랍의 만신전에서 마호메트가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선포하였을 때 알라가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교도 아랍인들이 숭배하던 신을 마호메트는 유일신으로 숭배했는데, 그는 마호메트 이전에도 숭배되던 신이었고, 그는 Quraysh의 부족신이었다. 마호메트의 청년 시절, 그가 일반적으로 숭배되어 있었기에 말이다. 카바신의 우두머리신에 대한 역사는, 알라가 HUBAL이라고도 불렸음을 알려준다. 그는 카바의 으뜸신이었고, 후별에 대한 역사가와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Quraysh는 카바 안에 그리고 주위에 몇 개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Quraysh에 의해 숭배되던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은 후별이었다(F.E. Peters, *The Hajj*, UP of Princeton, 1996, pp.24-25)회교성전인 카바에는 360의 우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으뜸신은 달신인 후별이다. 신이라는 이름 al-ilah는 주인이란 뜻이며(the Lord) 거기서 알라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카바에서 숭배되던 만신전의 최고 신이었다. 후별은 카바의 최고신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카바는 곧 달신의 집(house of the moon god)이다.

의 몸 안에 깃든 우주적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후별은 고대 근동의 생명과 원기 왕성한 성장의 상징들인 바알Baal신앙 즉 대지신앙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바빌로니아의 꽃에 대한 숭배와 맞물려 있는데, 이는 ‘바빌로니아의 창녀’라는 말이 상징하듯 폭넓게 보아 여성성에 대한 숭배전통에 뿌리박고 있다. 요컨대 달은 에로틱한 육체숭배의 자장 안에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처용가>에 등장하는 검은 역신의 이미지는 ‘검은 돌’의 달신인 후별의 이미지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저주받은 달처럼 어둠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검은 육체는 바뀌 말하면, 역신으로 상징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원형적인 달의 악마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역신과의 대결구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처용가>는, 공포, 도착적 관음증, 죽음의 테마들로 충만한, 대단히 무의식적인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이다. 앞에서 제시된 『삼국유사』의 기술물로 돌아가 우선 가장 인간적인 해석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주홍에 겨워 아내를 돌려주려는 듯 아내의 내실을 엿보던 처용의 장난스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다. 제 아내를 범한 자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역신(疫神)’이라 불린다. 상상컨데 ‘초승달’처럼 찡그린 눈을 하고 아내의 내실을 엿보는 행위는 점잖고 당당한 남성이 할 일이 아니다. 그 엄청난 현장에서 뒷걸음으로 물러나와 술에 취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는 실제로 대중들이 상상한 것처럼 영웅이라기보다는 속악스런 탕아의 모습을 비취준다. 오늘날의 감수성으로 보아 주정뱅이에, 관음증자에, 널따란 소매를 휘날리며 춤을 추는, 모든 면에서 보아 ‘신사’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를 인신적 존재로 상상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처용의 비상식적인 반응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아내가 외간남자와 통정하는 정황에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처벌과 응징 혹은 결투이다. ‘바람난 아내’만큼 남성에게 체면의 ‘장례식’은 없는 것이다. 저자거리에서 밤놀이를 하다 돌아온 처용량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친구같이 지내는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멋지고, 강력하고, 대단한 서방의 권위를 짓밟아 버린 여인과 간부에 대해 춤과 노래로서 반응한 처용의 태도는, ‘위반과 처벌’로 단혀진 사회적 결말을 거부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게 된다.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간부를 잔혹하게 처벌하고, 성적 권위를 조롱한 아내를 죽이든지 함으로써 자존심을 세우고 처벌자이자 주인의 힘을 과시할 것이다. 하지만 역신과 여인의 내실을 땀들며 달의 제전을 노래와 춤으로 ‘장식’했던 처용의 행위는 마치 안 보이는 내실의 황홀 혹은 달신을 위한 자화적인 축제 같기도 하다. 원초적 공간을 훑쳐보다 뒷걸음질쳐 나와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밤, 취해 망아적인 춤을 춘다는 것은 대단히 탐미적이다. 더 이야기를 상상한다면, 여인과 간부가 환락의 끝에 누웠을 때 아마도 처용은 팔다리를 펼치고 달빛을 바라보며 아무렇게나 쓰러져 누웠을 것이다. <처용가>의 태도는 분명히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며, 이는 사회적 윤리적 의미의 전복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처용의 춤사위는 사회적 자아의 ‘죽음’을 놀이하는 ‘안티클라이맥스anticlimax’며, 이 기이한 태도의 의미는, 역신을 단순히 간부라는 인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마적이고 영적인 문맥에서 이해할 때 수월하게 해독될 수 있으리라 본다.

### III. 검은 달, 역신(疫神)과 영매(靈媒)로서의 아내

본 장에서 논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처용가>에 등장하는 간통이란 사건이 인간존재의 의식적 해석이나 사회적 해석을 넘어서는 경험 즉, 자연적/영혼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코드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처용의 전승은 아내의 불륜이라는 사적인 재난을, 사머니즘적인 인간운명의 맥락 즉 삼재방지의 축사적 의미로 해석하는 독특한 변용을 보여주는데, 이런 다수의 전승맥락이나 문화적 카니발이라는 채널을 통해 ‘벽사(辟邪)’를 지향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보를 전해준다. <처용가>의 에로티즘적 요소는 인간 욕망의 사고만이 아니라, 존재의 또다른 진실인 자연과 영혼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그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간부라고 볼 수 없는 역신이라는 독특한 존재이다. 우리는 인간이 역신과 교접(아내)하고 대화(처용)했다는 이 특수한 의미의 경

힘을 해명해야 하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열려있는 문제이다. <처용가>의 축사적 주력관념은 임기중<sup>17)</sup>에 의해 제기되는데, 역신의 침범은 간통이라는 에로틱한 비유와 유사하면서도 그 이상의 영적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먼저 신에 점령당한 여인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신과 서방처럼 교접하는 여인이라는 설정은 처용의 아내가 무녀적 가능성을 가진 영매(靈媒)임을 암시한다. 샤머니즘에서 신과의 ‘교접’으로 암시되는 성몽(性夢)은 핵심적으로 주요한 모티프이다. 신이 깃드는 것은 폭력적으로 육체를 약탈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깃드는 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극악한 질병의 재난인 ‘무병(巫病)’을 야기하는데, 만약 처용의 아내를 달신과 ‘접신’ 중인 무녀적 이미지로 바라본다면, 서방의 위치를 찬탈하는 역신의 의미나 처용가의 주술적인 의미는 더욱 쉽게 해독이 된다. 자주 달로 상징되는 무녀의 내면적인 우주는 굶주린 신들의 발자국이 드나드는 만신전과도 같으며, 역신은 그 무녀의 육체 속에 깃든 신성의 불길한 상징화다.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신이란 인간적 반응으로 제어하기 힘들며, 즐겁게 놀아줌으로써 ‘달래’야 한다. 역신의 침범 앞에 처용이 춤과 노래라는 예술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역신은 천연두로 해독되어왔는데, 그것은 사회적 공포의 상징이자 인간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마적인 권능의 상징이었다. 이 치명적이고 어두운 힘은 질병적 이미지로 서구의 문학에서도 자주 악마적으로 다루어져왔다. 『켄터베리 이야기』의 배경이나, 『페스트』, 그리고 밀레니엄의 ‘버그’적 상상에 이르기까지 문명을 공격하는 천연두의 상징은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것이다. 하지만 독특한 것은 그런 마적 이미지가 <처용가>에서 육체적 암시를 통해 제시된다는 점이다. 생명을 약탈하는 천연두는, 에로틱한 남성적 행동의 극치(강간과 살해같은)이며,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힘이자 어두운 에너지이다. 천연두는 육체를 지배하고 해체하는 자연의 원리, 검은 대지적 속성, 더 나아가서는 어디든지 깃들 수 있는 바이러스같은 몰랄론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자연신의 속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역신은 절기에

17) 임기중, 『맹아득안가와 처용가』,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처용노래와 그 이야기의 변신모티프』, 『문학과 비평』 5, 1988. / 『처용가의 변신모티프』,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 출판부, 1992.

따라 부활하고 사그라지는 무서운 사회의 질병이자 치명적인 ‘신’이다.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힘으로 암시된 역신의 상징은, 실제로 종교적 체험 속에 사탄(기독교)이나 마리아(불교)같은 적대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끝없이 부활해왔고, 때로 마녀적인 존재의 육체 속에 깃드는 이단적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한다.



천연두의 심리적인 원형은 흉터와 두창을 달고 있는 ‘달’이다. 즉 처용의 아내를 범한 것은, 파괴적인 달신이며, 처용의 아내는 ‘검은 달’과도 같은 자연신의 소유임을 암시한다. 그럴 경우 에로틱한 정보는 더 어두운 문맥으로 움직여간다. 역병은 바로 그늘진 존재의 자연인 성육, 즉 불길한 자연의 힘이

관통하는 인간 운명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일 수 있다. 천연두만의 독특한 증상인 수포는 치명적인 열병의 흔적이다. 황홀에 타오르는 붉은 눈은 바로 역병들린 눈과 흡사하다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역병을 저주받은 애육의 징벌적 상징으로 해독할 수 있다. 고름잡힌 물질은 살갓이 숨쉬는 자국이며, 찌어가는 세포는 죽음의 운명이다. 그것은 곧 육체의 자연적 속성이다. 견고했던 존재의 윤곽을 무너뜨리면서 죽음은, 육체의 살갗 밑에 있는 자연의 세계로 존재를 이끌어간다. 천연두의 증상처럼 검게 찌어들어가는 육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대지의 거름, 재생, 풍요를 암시한다.

이 어두운 육체의 대지적인 속성은 앞 장에서 제시했듯, 아랍적인 감수성을 길게 풍기고 있다. 달의 신인 후벨은 본래 셈족의 신인 바알Baal과 아도니스Adonis(또는 Tammuz) 신앙에 그 모태를 가지고 있다. 후벨은 성서에서 경멸하는 바알인데 그의 기원은, ‘꽃송배’와 연관된 바빌로니아인 종교로 소급되며, 바빌로니아의 문화는 대단히 에로틱하며 폭넓게 여신송배와 연관되어 있다.<sup>18)</sup> 이는 역신과 통정한

18) 그 놀라운 흔적은 바빌론과 ‘바벨탑’으로 소급한다. 산산히 흩어진 바벨탑은 세계로 퍼져나간 언어적 분열을 상징한다. 세계의 여행자이자 고대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Herodotus는 신비로운 종교와 수많은 국가의 의례를 목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빌론이 꽃 송배의 모든

아내의 문학적 비밀을 더듬어보기 위해 상당히 증대한 내포를 지닐 수 있는 맥락이다. 가장 깊은 무의식의 수준에서 처용의 아내는 신성한 창녀와도 같은 대지신이며 꽃같은 미인이다. 이는 혹은 고대 아시아의 여신신앙의 대리자인 ‘신성한 매춘부’와 연결시켜볼 때 상당히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이 섬뜩한 여성의 성적 권능은 점차 문화적으로 금기화되어 왔는데,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달의 ‘이단적’ 이미지와 관련된 여성의 육체와 영성적 능력이다. 질병, 오염, 사망 등으로 악마화된 달의 이미지는 불길하고 그늘진 내포를 가지며 확장되어왔는데, 이는 성적 이항대립체계가 남성중심적 초점화에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재현의 문제를 보여준다. 여기서 처용의 아내는 처용이 대리하는 현실적 원칙과 달신이 지배하는 자연적(영적) 공간과 연결시키는 영매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과 신을 동시에 서방으로 소유하는 여인은, 달과 별같은 우주적 힘을 소유한 존재로서 이는 샤머니즘의 여러 도상이나 무구, 숭배물들에 잘 나타난다. 역신의 에로틱한 범접은, 엘리아데가 지적하듯 그 본질을 ‘엑스타시’에 두고 있는 샤머니즘과 주요한 접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샤먼들의 육체는 위험한 영적 황홀의 도가니이다. (이런 혼음적인 속성은 대지적 속성을 가진 여성의 성 자체에 내재한 자연적 본질이다.) 만월의 시간은 달신의 위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데, 이 불가항력의 달신에 소유당한 상태는 ‘다리가 났’이라는 섹슈얼한 클라이맥스로 암시된다.

그러므로 역신의 침범을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온 동일한 의미에서 ‘간통’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 마신과의 통정은 역사와 기억으로서의 존재의 자연성과 신성의 문제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현실을 움직이는 영적 차원의 부정적 힘, 즉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삼재(三災)’라는 운명적 힘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이 역신의 존재를 불길한 운명의 힘인 삼재로 해석해왔다. 다음은 이렇게 형성된 <처용가>의 일부이다.

---

체계로부터 태고의 근원이 비롯되었는지 말하고 있다. 원시 바벨의 종교는 바빌로니아의 신 벨과 바알Bel and Baal은 똑같은 신성을 가진 자인데, 바알의 딸 또한 셋이다. Leick, Gwendolyn. *Sex and Eroticism in Mesopotamian Literature*, Routledge, London, 1994. P.13

신라성대<sup>19)</sup>新羅聖代 쇼성대昭聖代  
 턴하대평天下太平 라후덕羅侯德  
 처용處容아바  
 이시인싱以是人生애 상블이常<sup>20)</sup>不語 히시란디  
 이시인싱以是人生애 상블이常不語 히시란디  
 삼지팔란三災八難이 일시쇼멸一時消滅 히쌌다<sup>21)</sup>.

고려후기에 형성된 위의 <처용가>는 ‘간통’이라는 에로틱한 정보가 벽사진경, 즉 구마(驅魔)적 의미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 <처용가>가 널리 축사의식의 노래로 퍼져 있음도, <처용가>에 중요한 영적 맥락이 포개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해석은 현재로서는 합의되어 있지 않지만 ‘삼재팔란’은 처용가에 대한 더욱 어두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달은 천연두의 두창처럼 흉터를 가진 별이며, 너무나 불길한 심리적 그늘을 던진다. 천연두라는 열병은 짐승같은 수욕을 가진 존재의 어두운 진실의 상징이며, 치명적으로 영혼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힘이다. 이 위력적인 자연신을 춤과 노래로 ‘달랜다’는 사머니스틱한 반응은 처용의 특이한 행동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합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흉사를 번역하기 위한 ‘삼재(三災)’라는 말은 본래, 인간의 운명을 자연의 무의식을 대리하는 ‘짐승’으로 상징하는 한국의 사머니즘적 전통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이러한 수성(獸性)의 문제는 <처용가>에 대단히 에로틱한 간통의 주제로 암시된다. 무서운 우주적 힘에 대한 달래기로 처용의 부적을 붙여놓은 대중들은 실용적인 번역은, 예술적 장치(부적) 혹은 말의 힘에 대한 신라인들의 신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처용가>가 특히 ‘사귀(邪鬼)를 축출’하는 문화적 카니발에 자주 애용되었다는 사실,<sup>22)</sup> 그리고 처용의 형상이 점차

19) 『악학편고』에는 국문을 병기하지 않았다.

20) ‘相’(『악학계법』).

21) 이는 충렬왕 16년(1290) 이후 공민왕대에 형성된 <처용가>의 일부이다. 조선조의 처용전승에 관해서는, 김명준 <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 pp.135-142에서 재인용

22) 處容之戲 肇自新羅憲康王時 有神人出自海中 始現於開雲浦 來入王都 其爲人奇偉侷儻 好歌舞 益齋詩所謂 貝齒橫額歌夜月 鳶肩紫袖舞春風者也 初使一人黑布紗帽而舞 其後有五方處容 世宗以其曲折 改撰歌詞 名曰鳳凰吟 遂爲廟廷正樂 世祖遂增其制 大合樂而奏之 初倣僧徒供佛 群妓

부적으로 대중에게 소통되었음을 상기해보면, <처용가>는 ‘금기’를 건드린 에로티즘만이 아니라, 사회적 무대 뒤의 온존하는 자연적 에너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齊唱靈山會相佛菩薩 自外廷回匝而入 伶人各執樂器 雙鶴人五 處容假面十人 皆隨行縵唱三回 入就位而聲漸促 撞大鼓 伶妓搖身動足 良久乃罷 於是作蓮花臺戲 先是設香山池塘 周插彩花高丈餘 左右亦有畫燈籠 而流蘇掩映於其間 池前東西 置大蓮萼 有小妓入其中 樂奏步虛子 雙鶴隨曲節翱翔而舞 就啄蓮萼 雙小妓排萼而出 或相向或相背 跳躍而舞 是謂動動也 於是雙鶴退處容入 初奏縵機處容成列而立 有時彎袖而舞 次奏中機 處容五人 各分五方而立 拂袖而舞 次奏促機 繼爲神房曲 婆娑亂舞 終奏北殿 處容退列于位 於是有一妓一人 唱南無阿彌陀佛 群從而和之 又唱觀音贊三周 回匝而出 每於除夜前一日夜 分入昌慶昌德兩宮殿庭 昌慶用妓樂 昌德用歌童 達曙奏樂 各賜伶妓布物 爲鬪邪也<『大東野乘』卷1 慵齋叢話> 처용회는 신라의 현강왕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인이 바다에서 나와 개운포에 나타났다가 왕도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됨이 기결하고 비범하여 노래와 춤추기를 좋아하였다. 익재의 시에 “흰 이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하고, 제비 어개 붉은 소매로 봄바람에 춤추네” 한 것이 이것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검은 베옷에 사모를 쓰고 춤추게 하였는데, 그 뒤에 오방처용이 있게 되었다. 세종이 그 곡을 참작하여 가사를 개찬하여 봉황음이라 이름하고, 마침내 묘정의 정악으로 삼았으며, 세조가 그 제를 늘여 크게 악을 합주하게 하였다. 처음에 승도가 불공하는 것을 모방하여 기생들이 영산회상보살을 제창하고, 외정에서 돌아 들어오면 영인들이 각각 악기를 잡는데, 쌍학인 다섯, 처용의 가면 10명이 모두 따라가면서 느리게 세 번 노래하고, 자리에 들어가 소리를 점점 돌구다가 큰 북을 두드리고 영인과 기생이 한참동안 몸을 흔들며 발을 움직이다가 멈추면 이 때에 연화대놀이를 한다. 먼저 향산과 지당을 마련하고 주위에 한 길 이 넘는 높이의 채화를 꽂는다. 또 좌우에 그림을 그린 등롱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다섯 색으로 만든 술이 어른거리며, 지당 앞 동쪽과 서쪽에 큰 연꽃 받침을 놓는데 소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 보허자를 주악하면 쌍학이 곡조에 따라 빙글빙글 춤추면서 연꽃 받침을 쪼면 두 소기가 그 꽃받침을 헤치고 나와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서로 등지기도 하며 죽도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를 동동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쌍학은 물러가고 처용이 들어온다. 처음에 만기를 연주하면 처용이 열을 지어 서서 때때로 소매를 당겨 춤을 추고, 다음에 중기를 연주하면 처용 다섯 사람이 각각 오방으로 나누어 서서 소매를 떨치고 춤을 추며, 그 다음에 축기를 연주하는데, 신방곡에 따라 너울너울 어지러이 춤을 추고, 끝으로 북전을 연주하면 처용이 물러가 자리에 열지어선다. 이 때에 기생 한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창하면, 여러 사람이 따라서 화창하고, 또 관음찬을 세 번 창하면서 빙돌아 나선다. 매양 선달 그믐날 밤이면 창경궁과 창덕궁 양 궁전 뜰로 나누어 들어간다. 창경궁에서는 기악을 쓰고, 창덕궁에서는 가동을 쓴다. 새벽에 이르도록 주악하고 영인과 기녀에게 각각 포물을 하사하여 사귀를 물러나게 한다.<『대동야승』 권1 용재총화>

## IV. 결론

본래 향가와 달의 상징은 대단히 깊이 결부되어 있었지만, <처용가>의 경우 이 달은 한국적인 정감이나 불교적 정서의 자장 안에 있는 상징적인 표징이라기보다, 불길한 정조를 지닌 달신 혹은 여성적 음(陰)의 원리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야 할 듯하다. 처용가의 여러 전승텍스트들을 통해 보면 달의 의미는 샤머니즘적 맥락과 자유롭게 결부되며 에로틱한 은유와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처용가>는 공포와 악, 가장 위험하고 섬뜩한 운명의 힘에 지배받는 존재의 비밀을 묘파한 작품이다. <처용가>의 에로틱한 사건은 자연과 우주적 힘에 관통당한 존재의 운명적 경험에 대한 일종의 상징화다. 인간사회에 치명적인 질병적인 상징은 사회적 원리를 뛰어넘은 인간 경험의 가능성을 위한 은유였다.

<처용가>의 에로틱한 코드의 핵심적 의미는 사회적 재난이자 인간존재의 내부에 질병처럼 자리잡은 ‘자연’이란 급소이다. 처용의 아내는 이런 자연의 힘에 지배받는 영매적 이미지다. 역신이 남성적 욕망의 불순한 파괴성 뿐 아니라 달로 상징되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우주적 힘에 대한 암시라면, 역신의 에로틱한 침범은 영적 클라이맥스로서의 ‘접신’이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처용가>의 에로틱한 정황은 영적 문제로 해독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달신상과 관련된 한국의 샤머니즘과 아랍권의 종교적 감수성을 주목할 수 있다. 자연의 운명적 리듬에 지배받는 존재의 재난은 ‘삼재’라는 말로 암시되는데, 다양한 처용의 전승 텍스트들이 벽사진경의 의미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진 것도 <처용가>가 선악의 이원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우주적 진실을 표현해내기 때문이다.

처용은 존재를 관통하는 어둡고 치명적인 힘을 사회적 도그마를 넘어선 언어로 노래한 미적 인간이었다. 처용의 불가해한 물러남은 인간적인 용서나 체념이 아니며, 자연의 위험한 힘을 달래기 위한 샤머니스틱한 예술적 태도이다. 신라인들의 주력관념에 의하면 향가는 우주적 힘을 달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운명적인 재난을 처용의 ‘덕과 위엄’으로 축출한다는 대중적 전승들은, 영적 맥락에서의 <처용가> 해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선악의 두 얼굴을 가진 우주적 진실을

통찰한 처용은, 한국문학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적인 존재로서 추앙되고, ‘다리가 넷’이라는 비속하고 외설스런 묘사는, 존재의 위대한 진실을 드러낸 명귀로 반복되어 불려진다. 만월이라는 상징의 자장 속에 펼쳐지는 달의 에로티즘은 <처용가>를 관통하는 미학적 심장이다.

### 인용문헌

- F.E. Peters, *The Hajj*, UP of Princeton, 1996, pp.24-25
- G. J. O. Moshay, *Who Is This Allah?*, Dorchester House, Bucks, UK, 1994
- Leick, Gwendolyn. *Sex and Eroticism in Mesopotamian Literature*, Routledge, London, 1994. P.13
- Morey, Robert. *The Islamic Invasion: Confronting the World's Fastest Growing Religion*. Christian Scholars Press, Las Vegas, Nevada, 1992
- Van Ess, John, *Meet the Arab*, New York: The John Day Co.1943
- 정덕본 『삼국유사』 리상호 번역, 고전연구실. 과학원 출판사. 1960년
- 김명준 『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002; 처용 전승텍스트: 『동경잡기』 『익재난고』 『악학궤범』 『악학편고』 『대동야승』 『목은집』 『도은집』 『고려사』 『영남악부』 발췌저술
- \_\_\_\_\_, <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
- 김원경, 「처용가의 변천과 Shamanism에 대한 연구-특히 처용가의 설화성과 민속 신앙을 중심으로」, 『논문집』 3, 서울교대, 1970.
- 박노준, 「고려처용가의 형성 과정」 『고려가요의 연구』(새문사, 1990)
- 이용범, 「처용설화의 고찰-당대 이슬람상인과 신라」, 『진단학보』 32, 진단학회,

- 1969 ;『대동문화연구』별집 1, 성균관대, 1972; 『향가연구』국문학논문선 I, 민중서관, 1977
- 임기중, 『맹아득안가와 처용가』,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_\_\_\_\_, 『처용노래와 그 이야기의 변신모티브』, 『문학과 비평』 5, 1988  
 \_\_\_\_\_, 『처용가의 변신모티브』,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 출판부, 1992.
- 이희수, 『한·이슬람교류사』, 문덕사, 1991
- 이븐 바투타, 정수일 역, 『이븐바투다 여행기』, 창작과비평사, 2001
- 정수일, 『新羅·西域交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1992.  
 \_\_\_\_\_, 『문명교류사 연구』, 사계절, 2002  
 \_\_\_\_\_,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_\_\_\_\_, 『실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2001  
 \_\_\_\_\_, 『이슬람 문명』, 창작과비평사, 2002
- 최성호,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배경과 사상을 중심으로』, 1984
- 하태석, 『무가계 고려속요의 성격 연구』, 『어문논집』 43집(민족어문학회, 2001).
- 한규조, <사탄과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패러독스>, 『밀턴 연구』 한국 밀턴 학회, 1992

**Abstract**

**A Study of the Moon Eroticism in Cheoyongga  
(處容歌, “Song of Cheoyong,” a Shilla hyangga)**

Huh, Hye-jung  
Seoul Women’s University

Intrinsically, Hyangga (鄉歌, Silla songs written in Hyangchal writing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lunar symbol were profound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However, as seen in Song of Cheoyong (處容歌, a hyangga chanted by Cheoyong), this very moon “luna” seems to be regarded as the lunar goddess with an ominous chastity or the principle of Yin (陰), rather than a symbol of Koreanized sentiment or a Buddhist emotion. The various texts of the Cheoyong Song that have been handed down tell us that the pregnancy caused by “this” moon god combines with the shamanist context, creating erotic metaphors and imagery. The Cheoyong Song creates an atmosphere of horror and evil suggestive of jeopardy and weirdness. The erotic incident in the work constitutes a symbolic portrayal of the fateful experience of existence overwhelmed by natural and universal forces.

The core implication of the erotic code that the Cheoyong song sends out is “nature”, a vital spot that lurks as a form of disease in the inner part of human existence, and a social disaster as well. Cheoyong’s wife presents an image of a spiritual medium that is governed by such nature. If the evil spirit insinuates not only the impure vandalism of the masculine desire but also the cosmic might that are adverse and negative, being symbolized as the

luna, the erotic invasion of the evil spirit may well be construed as being possessed by itself. In other words, the erotic circumstances of the Cheoyong song should be decoded by the spiritual element itself, which, in this context, invites us to pay attention to both Korean shamanism and the religious susceptibility in the Arab region, which are apparently relevant to the lunar religion. The existential calamity followed by the destined rhythm of nature is implied by the word Samjae (三災, the Three Disasters from baleful stars), and it is because the Cheoyong song was able to express the universal truth embracing the dualism of virtue and vice simultaneously that the inherited diverse texts of the Cheoyong song were accepted by the commoners in general as being related to the practice of exorcising.

Cheoyong can be seen as an aesthetic human being who sings about the murky and implacable force that pierces the being with a language that transcends social dogma. The fact that he withdrew inscrutably from the scene may be ascribable, not to humane forgiveness or resignation but to his artistic attitude toward shamanism which may have prompted him to placate the perilous power of nature. Hyangga, according to the prevailing notion on the part of Silla people, possessed a power that could pacify the forces of heaven and earth. That the fatefully calamitous event is driven out by Cheoyong's virtue and dignity renders greater persuasivenes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heoyong song in the spiritual context. Cheoyong, who had an insight into the two-faced cosmic truth of good and evil, is adored as a deified human being unmatched by anyone els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vulgar and obscene description in which 'she has four legs' is repeatedly chanted, revealing a great truth of existence